

국제농업박람회, 스마트농업 정착 원년 선포

21일 개막식...수출협약·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2021 국제농업박람회가 21일 '스마트 농업 정착 원년의 해'를 선포하며 화려하게 개막했다. 특히 개막식 후에는 농수산물 수출협약에 이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본격 시작해 비즈니스 박람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중 도의회의장, 장석웅 도교육감, 김승남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2021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응원했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미래를 꿈꾸는 스마트 농업'을 주제로 11일간 열린다.

박람회 홈페이지와 '오픈전남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행사는 '전남도립극단'과 크로스오버 뮤지컬 그룹 '오드아이'의 식전 공연, 흥보대사 배아현 씨의 신명나는 트로트 축하공연, 2021년을 스마트 농업 정착 원년으로 선포하는 개막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했다.

국제농업박람회 이사장인 김영록 지사는 개회사에서 "국제농업박람회는 우리 농업이 전통 산업을 넘어 첨단기술서비스 산업으로 도약했음을 알리고 미래 첨단 농업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코로나19로 힘든 농업인과 기업에 최상의 사업 기회를 제공할 비즈니스 장이자, 세계 속에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선보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람회장은 ▲미래농업존(스마트 농업 1·2관) ▲치유체험존(치유체험관, 힐링정원, 치유동물농장) ▲농식품 홍보존(농식품관, 농기자재관, 농기계시연장)의 3개 존 8개 행사장으로 꾸몄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관람을 위해 QR코드 입

장, AI피플카운팅, 주기적 소독 등을 통한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운영한다.

개막식에 이어 오후에는 미국 한남체인 플러튼점의 제1호 전남 상설판매장 운영사인 키트레이딩 류돈희 대표를 포함해 10명의 현지 운영사 대표가 공동으로 상설판매장 운영 활성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2700만 달러 수출협약을 했다. 수출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우수 제품을 지속해서 발굴, 판촉행사 등을 통해 상설판매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운영사는 현지 유통망을 활용해 판로를 확대하는 등 상설판매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수출협약식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수산물식품 기업에 새로운 활

로가 될 것"이라며 "협약 금액이 꼭 실현되도록 운영사와 전남도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출협약을 시작으로 24일까지 4일간 스마트농업2관에서 전남도 농수산물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현지 운영사를 비롯해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사, 중국 바이어 등 15개국 65개사 바이어가 참가하는 농수산물식품 수출상담회도 진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1 국제농업박람회가 21일 오전 나주시 삼포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김한중 도의회의장, 장석웅 교육감, 김승남 국회의원, 강인규 나주시장, 배아현 흥보대사 등 참석자들이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형외과용 융합의료기기센터 광주 테크노파크에 개소

전국 유일 정형외과용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가 광주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1일 "북구 테크노파크 2단지에서 정형외과용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인철 광주시 운영실, 공동개발실, 시험분석실이 들어섰고, 정형외과용 소재부품 가공·시험·분석 장비 등 총 37대를 갖추고 있다.

센터는 총 사업비 272억원이 투입됐으며, 지상 2층, 연면적 3647㎡(부지 5824㎡) 규모로 2020년 3월 착공해 지난해 말 완공했다. 1층에는 기계 가공 및 후처리 장비실, 3D프린터실, 2층은 센터 운영실, 공동개발실, 시험분석실이 들어섰고, 정형외과용 소재부품 가공·시험·분석 장비 등 총 37대를 갖추고 있다.

또 골절 치료용 고정장치를 주로 제작하는 ㈜기현테크를 비롯한 (유)인터메디, SNC메디라인, ㈜폴리바이오텍 등 13개 정형외과 소재부품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센터는 앞으로 인공관절·금속 판·수술기구 등 정형외과용 소재부품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공원일몰제서 지켜낸 '생활형 재정공원' 순항

장기미집행 15곳 순차 추진

총 196만㎡ 중 사유지 42% 매입

2023년까지 24개 도시공원 조성

광주시가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지켜낸 '생활형 재정공원' 조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1일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곳의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앞서 광주시는 2017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민간공원특례사업 9개 공원과 재정공원사업 15개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시설로 결정된 곳이라도 20년 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광

주시는 공원을 지키려고 9곳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15곳에서 재정공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공원은 광주시가 예산을 직접 투입해 토지를 보상하고 새롭게 조성하게 되며, 전체 면적 196만㎡ 중 48%인 94만㎡가 사유지다.

광주시는 재정공원 15곳에 대한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3523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사유지 매입예산 1361억원을 확보하는 등 토지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94만㎡ 중 42%의 사유지 보상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장기미집행 재정공원 중 첫 번째로 신촌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하는 성과도 냈다.

신촌근린공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1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2만3000㎡를 조성했다.

내년에는 재정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영산강대상근린공원과 송정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보상계획공고, 보상협의회 구성 등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협약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시는 또 호남대 상촌캠퍼스 도시계획변경 협상과정에서 납부하기로 한 공공기여금 203억원을 서구 운천근린공원과 화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투입해 새로운 명품공원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각오다.

시는 2023년 이후 현재 추진중인 민간공원특례 사업을 포함해 24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집과 가까운 생활권에서 충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용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주거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재정공원은 물론 민간공원까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행정·경제 통합 논의 첫발

광주·전남·연구원 협약

광주와 전남을 행정 또는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연구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주시, 전남도, 광주전남연구원은 21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를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2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해 광주전남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며 2022년부터 203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한다.

광주·전남의 미래와 상생을 위한 비전, 목표를 제시하고 행정통합과 경제통합(메가시티) 등 분야별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과업은 ▲상생발전을 위한 경제 등 협력방안 연구 ▲경제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조합, 협의회 등 연구 ▲행정통합 연구 ▲사·도민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 ▲공론화 방안 연구 등이다. 연구원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 보고회를 열어 연구 일정에 돌입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2일 행정통합 논의에 합의하고 통합 내용, 방법, 절차 등 연구 용역을 1년간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양 사·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6개월간 검토, 준비 기간을 거쳐 사·도 통합 공론화 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전남도, 70세 이상 49.5%

전남도가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70세 이상은 지난 12일부터 접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2만 3천539명이 완료해 접종률은 49.5%다. 전국 평균 접종률(34.8%)을 웃돌고 있다.

65-69세도 21일 접종을 시작했다. 시군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무료 접종자 대상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65세 이상 접종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예방접종사전예약누리집(ncvr.kdca.go.kr)'이나 '시군 콜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정부 방침에 의해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접종 전 대상자와 백신 종류를 3회 이상 확인하고 스티커·목걸이 등 백신별 고유 인식표를 부여하는 등 오접종 방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등은 인플루엔자 감염에 취약할 수 있고 폐렴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겨울철 감염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신부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도 한창이다. 생후 6개월-8세 어린이 중 생애 첫 접종자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며, 임신부는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